

광주시, 유망 창업기업 5개사 '유니콘' 키운다

'G-유니콘 경진대회' 성장 가능성 평가 사업화 자금·투자 유치·컨설팅 등 지원

광주시가 지역 유망 창업기업 5개 사를 선정해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다.

광주시는 지난 29일 빛고을창업스테이션(ST A·G, 스테이지)에서 G-유니콘 기업 선정을 위한 'G-유니콘 육성 프로그램 참여기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G-유니콘 육성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광주시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창업기업의 사업 확장(스케일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업력 7년 이내(신기술창업 10년 이내)로 광주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 가운데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선발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이 기술성, 사업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참여 기업 5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G-유니콘 기업은 ㈜캔디옵틱스, ㈜레이브머티리얼즈, ㈜에쓰지마, ㈜일리오, ㈜에이드올 등 5개 사다.



광주시가 사업화 자금 최대 1억6천만원을 지원하는 '유망 창업기업' 5곳을 선정했다. 사진은 G-유니콘 육성 프로그램 참여기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캔디옵틱스, 레이브머티리얼즈, 에쓰지마, 일리오, 에이드올 등 5개 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광주시 제공>

에이드올 등 5개 사다.

㈜캔디옵틱스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듀얼센서 융합 하이브리드 광학 렌즈 모듈 기술을 보유

하고 있으며, ㈜레이브머티리얼즈는 고순도 흑색 산화티타늄 기반 친환경 소재 제조 기술을 갖고 있다.

㈜에쓰지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양 기상예보, 수산생태계 변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일리오는 생성형 AI 기

반 글로벌 팬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에이드올은 단말형 온디바이스 AI 기반 시각장애인 보행 보조 자율이동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에 대해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기업별 최소 9천만원에서 최대 1억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향후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기업 3개 사에 최대 3천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투자유치(IR), 대·중견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해외 전시회 참가 및 글로벌 진출, 1대1 맞춤형 전문 상담 등 기업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글로벌 진출 지원과 투자 연계를 강화해 선정 기업들이 '에비유니콘'을 넘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오영걸 경제성장국장은 "G-유니콘 육성사업을 통해 발굴된 기업들이 실제 투자 유치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기술 기반 유망 창업기업을 지속 발굴해 광주를 창업 성공률이 높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남개발공사 '중동위기 극복 기업 안심펀드' 운영

기업은행 협약 年1.76% 이자 1억 대출 지방공기업 최초 금융지원...기업 부담 ↓

전남개발공사가 최근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 지역 수출입기업과 경영 애로 기업을 위해 전국 지방공기업 최초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전남개발공사는 30일 IBK기업은행과 '중동 위기 극복 전남 기업안심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공사가 조성한 예탁금 15억원을 재원으로 전남 소재 중소기업에게 연 1.76%의 감면 금리를 지원하는 펀드를 5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최대 1억원,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지원 대상은 전남 소재 기업 가운데 ▲중동지역 수출입 기업 ▲중동지역 진출 기업 ▲석유화학·항만물류 등 관련 업종 기업 ▲원자

재 가격 상승,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

화되면서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번 펀드를 추진했다.

특히 전남 동부권은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과 항만물류 등 수출·입 연계 산업이 밀집해 있어 유가 변동, 원료 수급 불안 등에 민감한 구조다.

이번 지원을 통해 자금 부담을 겪는 지역 기업들의 금융 비용을 줄이고 수출입 거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기업과 도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전남든든 ESG펀드' 30억원, '전남 스타트업 디딤펀드' 20억원, '전세상생금융펀드' 20억원을 운영하며 총 7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장중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지역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펀드가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

전남도는 30일 "오는 5월2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추가 접수는 지난 2·3월 정기 신청 기간에 개인 사정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임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나 공동경영주로서 2025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추가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 이후 시·군은 거주와 경작 사실 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농어민에게는 6월 말까지 경영체당 7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농어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며 "더 많은 농어민이 공익수당을 받도록 안내와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임업의 공익적 가치와 경영 안정을 위해 전남도가 2020년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올해 1차 지급은 지난 4월 21만4천3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총 1천488억원(도비 599억원, 시·군비 889억원)이 지급됐다. /양시원 기자

광주역사민속박물관, 5일 어린이날 새싹잔치

광주시역사민속박물관은 30일 "어린이날을 맞아 5월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구 용봉동 역사민속박물관 본관과 광산구 신장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 '어린이날 새싹잔치'를 연

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만들기 체험, 풍선쇼, 버블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용봉동 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온가족 포토 박스와 페이스 페인팅, 마한의 부채와 현악기 등을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민속놀이·버블 놀이·초코아트 체험을 운영한다.

버블놀이·초코아트 체험, 솜사탕·팝콘 나눔 부스, 싱어롱·풍선아트쇼·버블쇼 공연 등을 진행한다.

신장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는 어린이들이 놀이 활동을 통해 마한유적을 공부할 수 있는

'신장동 보물찾기' 프로그램과 민속놀이·버블 놀이·초코아트 체험을 운영한다.

보물찾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마한유적체험관 캐릭터 굿즈와 체험 교육용 만들기 키트 등을 받을 수 있다.

체험과 공연에는 시민 누구나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료는 무료다. /변은진 기자

묘 이장 · 개장

가족묘 조성 / 개장 / 묘지이장 / 유골함 / 자연장

맞춤형 묘지이장 전문 문의) 062-464-3466